

불교미술대전 수상자등 화가 60여명 총집합

# 불교미술 새 지평 여는 마당

조계종 '미술의 해 특별기획전' 13일부터 공평아트센터

지난해로 14회를 치러낸 조계종 불교미술대전의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시현스님)는 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95 미술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을 오는 13일 인사동 공평아트센터 2층에서 개최한다. 불미전 수상자들의 작품 외에도 오늘날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최근작이 한자리에 총망라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벌써부터 교계와 화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미전 종정상 수상자, 총무원장상을 받고 1회의 우수상 수상자, 우수상을 연 3회 받거나 격 5회 수상자, 특선을 연 5회 받거나 격 7회 이상의 수상자, 입선을 연 9회 이상 수상자와 불교인으로서 국내외적 미술활동에 현저

한 공적이 있고 대한민국 불미전 추천작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참가한다. 만홍스님 석정스님 해각스님 일담스님 원종스님 관조스님 축, 서예 등 전통불교미술부문은 물론 동양화, 서양화, 건축, 서예, 사진 등의 순수불교미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미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95 미술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 개막식은 오는 13일 오후 4시 공평아트센터 2층에서 대금산조 및 가야금 연주를 곁들인 소규모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등 다양한 작품세계 '불 기회'

김응현 정기섭 전영화 전연호 이종욱 김의식씨 등 40여명의 역량이 있는 역대 수상자들이 초대된다. 또 한기승 안강수 정경문 등 20여명의 초창작가 작품도 전시된다. 출품작가들의 불교정신과 세계관을 담아 2천년대의 불교미술상을 제시하게 될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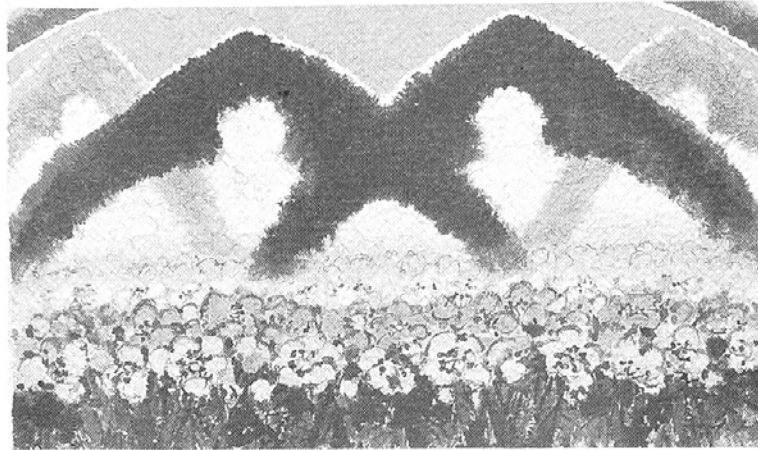
축, 서예 등 전통불교미술부문은 물론 동양화, 서양화, 건축, 서예, 사진 등의 순수불교미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미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불교문화의 전통을 고집하는 전통순수불교미술 작가의 작품과 불교의 정신과 급변하는 세계관을 융성 있게 잘 반영하고, 주제가 뚜렷한 신표현 경향의 작품을 지향하는 현대미술 작가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작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해

불교미술작가들의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연호작 5존도 괘불B

전영화작 메이리 95



도필선 기사

첫기획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민익 회영림 남관 등 작고작가와 김기광 광훈 조광호 등의 회화작가와 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 도부조판화 새영역 제시

임효개개인전, 13일까지 문예진흥원



임효개

쫓고 붙인 작가의 정열이 그대로 내비치는 것도 임씨의 작품 세계가 갖는 또다른 특징이다. 주제는 한국적 무위자연의 신화세계로 일관되고 있다. 전시는 13일까지다. 임효개는 이번 전시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지방 5개도시 순회전도 가질 계획이다.

## '묵판서 노니는 물고기'

이광빈전, 백악예원서

묵판의 선과 조형감을 살린 이광빈전이라는 6일까지 백악예원에서 열린다. 묵판을 갖고 첫 전시회를 마련한 이광빈씨는 이번 전시에서 물고기를 주요 소재로 하여 여기에 담긴 신화적, 종교적 상징(像)을 선과 여백을 살려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거친듯하면서도 구수한 칼집의 맛을 조각을 통해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다. 또 숙달의 경지에 이른 조형감과 과감한 단순화는 작품의 품위를 더해준다.

## 한일교류 3천년전

내달 25일까지 롯데월드 민속관

"눈물로 조국땅을 그리는 조선 여인의 절절한 수난사가 느껴지십니까?" 임진왜란때 납치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쳐진 비운의 조선인 자매 오소에와 고소에 자매의 손때가 묻은 호신불이 관람자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역사를 각종 유물과 자료사진 모형물들의 입체전시를 통해 알



일본 법사 금당벽화

## '시왕도' 등 조선시대 불화 12점 '눈길'

가rip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개막된 '한일교류 3천년전'은 오랜기간 '걸고도 가 까운 이웃'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살아 온 나라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재조명해 보는 역사의 장으로 10월25일까지 펼쳐진다. 특히 '일본 속의 한국문화 재' 전에서는 잘 알려진 법종

사의 금당벽화가 화재(1949년)로 훼손되기 전 촬영한 필름을 반사분해하여 합성한 사진을 기초로 복원한 모습으로 첫선을 보이고 있다. 또 호소지(보성사)에서 소장중인 <시왕도>와 사이다이 지(서대사)의 <제석천왕> 등 처음 국내에 들어 온 조선시대 불화 12점은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바다를 건넌 사람들' 등 5개 전시실로 나눠 주제별로 기획했다.

## 원로·중진작가 초대전

미화랑 청담동 이전기념

원로·중진작가들이 한데 모인다. 신사동에서 청담동으로 화랑을 이전한 미화랑이 중진·원로작가를 초대 지날달 28일부터

## '한국지성의 표상전' 열린다

86명 참가... 손연철·하수경등 불자교수도

전국 48개 대학 교수작가 86명이 참가하는 제3회 '한국지성의 표상'전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손연철교수의 '하심', 삼동백화점 불교현장음 소재로 삼았다.

자아 만나게 된다. 현직 교수들의 근작 1백72점이 선보이는 이 전시회는 교수신론(발행인 이영수)이 주최하고 삼성문화재단과 한국미술협회 후원했다.

### 불심시심 <29>

구름 사이로 온 나그네

湘南高臥白香山 (상남고와백양산)	강남의 백양산에 높이 누워서
靜聽寒溪月下潺 (정청한계월하잔)	달 아래 시내 소리 잔잔함 듣다
丹桂陰中門半掩 (단계음중문반엄)	계수나무 달 그늘속 반쯤 닫힌 문으로
一筇來自碧雲間 (일봉來自碧雲間)	한 지팡이 푸른 구름사이로 오다

앞에서 소요대사의 선기 넘치는 사를 보았다. 여기서 큰 스님으로서 큰 사람으로 세속 인정을 어루만지는 인정을 음미해 보자. 이 시는 당시 재상이었던 박순(朴淳)이 찾아와 부르는 운자에 화답한 시이다. 시를 지은 동기가 상대방이 부르는 운자를 따라 짓는 시이니 즉흥적 시이다. 따라서 시의 구성에 의도적 구미이나 기교가 스며들 기회가 없다. 당시 상층의 진솔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는 앞의 두 구는 자신의 처지를, 뒤의 두 구는 찾아온 스님의 상상을 묘사함으로 만족했다. 자신은 백양사로 내려와 그저 한적하게 누워 지내는 몸이다. 높이 높다 하였으니 이 높음의 의미가 바로 세속과 단절된 거리를 표현한 공간적 의미이다. 이 높음의 대칭으로라도 인도하듯이 달 아래의 잔잔한 물소리라 했다. 모든 상라만상이 달 밑에 있지 않음이었지만 달 아래 있는 시냇물이 어찌면 더 운치가 있는 듯하다. 그것은 어찌면 물

이 달 그림자를 통째로 감싸 안을 수는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기에 부처가 달이라면 그를 간직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잔잔한 시내의 울림을 듣고 있는 것이 산승의 생활이다. 여기에 세속의 높은 벼슬 아치가 찾아왔다 붉은 계수나무 그늘에 반쯤 닫혔으니 반쯤 열려 있는 문이다. 계수나무 그늘은 달을 상징한 표현이니 달 밝은 반쯤 열려 있는 문으로 지팡이 하나 날아 들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매개체로 끼어든 것이 결국은 달이다. 두 사람의 마음으로의 교감이 달처럼 맑다. 달은 구름과 구름 사이를 오간다. 여기에 나타난 재상은 저 푸른 구름 사이에서 왔을 것이다. 이 구름에는 두의 미의 복합이다. 푸른 구름이니 세속의 높은 지위일 수도 있지만 벽운의 구름으로 신선세계의 상징일 수도 있다. 잠깐이런 시어를 감상하기에 족한 시다. 이준찬 <동국대 교수>



## 조계종 내년 달력 선보여

'산사의 향기' '연꽃의 세계' 2종

조계종 사업부(부장 설승)가 내년도 불교달력 2종을 선보였다. 조계종 사업부가 첫 수익사업으로 기획 제작한 내년 달력은 '산사의 향기'와 '연꽃의 세계'로, 보급형 제인인 '산사의 향기'는 산사의 풍경과 법구경을 아우러 놓은 것이며 제 20인인 '연꽃의 세계'는 연꽃의 일생을 통해 삶의 교훈과 자연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은 윤명숙씨의 작품이다. 사업부는 이 달력을 주문·보급키로 했으며 가격은 5백부 미만 주문 때는 1천5백원, 그 이상 주문 때는 1천4백원씩이다. <문의> 735-2042

'세계자연 유산'에 설악·한라산 신청 문화재관리국은 내년달까지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에 설악산과 한라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8일 관련자료 수집차 속초시에 관 계관을 파견.

#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벼락처럼 단번에 지르는 지혜의 완성-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밝게했다!  
나는 허상의 웃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 법구경 ①②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사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위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통머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입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라이프스타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7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